

“누에고치서 실 뿜듯 바늘과 천으로 나만의 스토리 뿜아낼 것”

환갑에 첫 전시 ‘바느질쟁이’ 윤광석 작가...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 2월16일까지

중학생 때 봉제 기술 배워 영광서 지금까지 의상실 운영
故 김훈 디자이너·음악가 임동창 등 만나며 ‘문화’ 눈 떠
섬유예술작품, 전시장 변신한 옛 잠사공장과 안성맞춤

1974년 봄, 14살의 그는 고향 영광을 떠나 광주로 나왔다. 중학교를 다니지 3개월만이었다. 가난한 집안살림 때문에 학비를 마련하기 어려웠다. 충장로 의류 부자재 가게에서 일하던 그는 이후 ‘옷 만드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게 된다.

2019년 1월, 60살의 그는 나주에서 초대전을 열고 있다. 장기인 ‘옷’ 대신 자신의 본신과도 같은 천과 바늘 등으로 작업한 ‘섬유예술작품’ 들을 내걸었다. 늘 마음 속에 품었던 작가로서의 첫발이다.

한국천연염색박물관 기획전으로 나빌레라 문화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윤광석 작가 초대전(2월16일까지)은 흥미로운 전시다. ‘바느질쟁이’와 뿜 수 없는 오브제 작품의 소재로 쓰였다. 전시 제목 ‘선으로 선으로’는 면과 무명을 일일이 손으로 꼬고 작업해 만든 작품들과 일맥 상통한다

가게에서 일하던 소년은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상무대 인근 의상실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왠지 끌려 양복 대신, 양장을 택했고 봉제 기술을 어느 정도 연마한 후 영광에 작은 의상실을 열었다.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까지는 시골 읍내에도 10~15개의 의상실이 있어 웬만큼 실력이 있으면 밥먹고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곧바로 ‘논노’ ‘조이너스’ 등 기성복들이 쏟아지면서 불황을 겪게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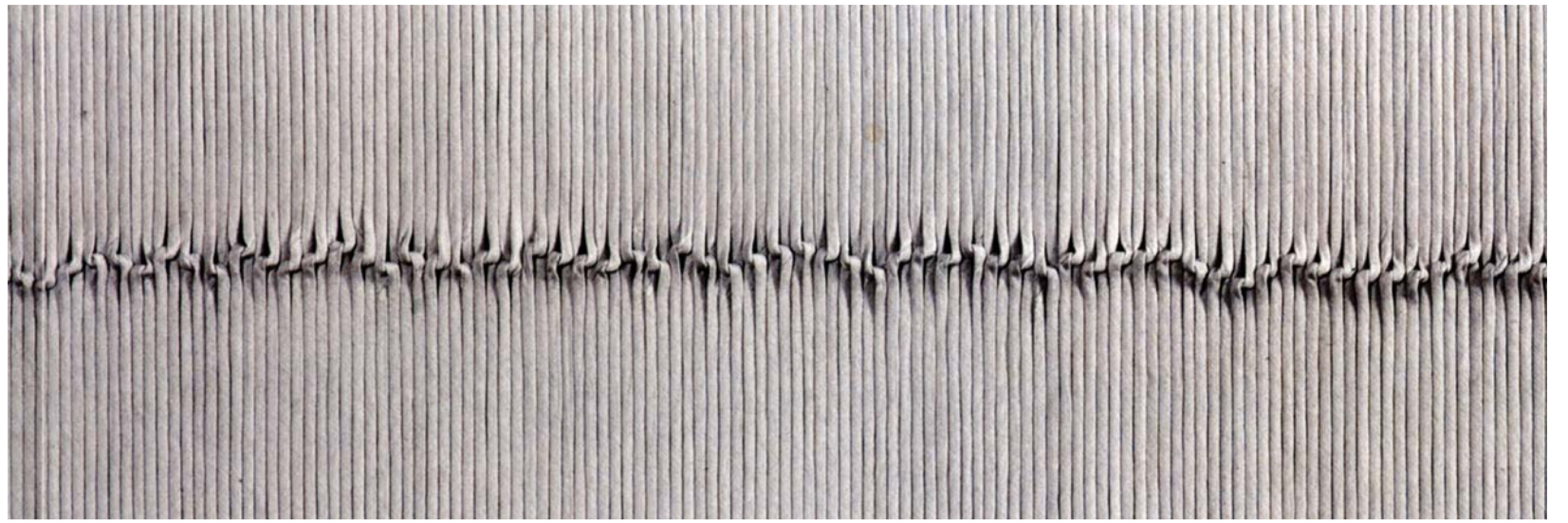


만 그는 옷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시골의 의상 디자이너가 ‘문화’에 눈을 뜬 건 광주에서 활동하던 고(故)김훈 디자이너와 인연이 계기가 됐다. 클래식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김씨가 문을 연 문화공간 ‘탑전’을 찾게 됐고 피아니스트 임동창과 가수 이동원을 만났다. 그곳에서 만난 문화계 인사들의 ‘바짓자락을 잡고서라도’ 문화에 관해 이것저것 배우고자 했고, 문화에 눈을 뜨며 무언가 기존 사고가 깨지는 느낌을 받았다. 임동창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져 이번 전시 오프닝사에서 그는 특별한 퍼포먼스를 진행해 주었다.

당시 만난 이들에게서 들은 말 중 하나가 곧이 변화한 곳이 아닌, 지역의 고가(古家)에 숨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1998년 그는 120년된 일본식 가옥을 인수해 의상실과 카페 ‘남도방’을 오픈,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끊임없이 옷을 만들고 또 전후한지 패션쇼와 체코 프라하, 독일 브란덴부르크 패션쇼 등에 참여하



의상 디자이너에서 작가로 변신한 윤광석씨의 작품 ‘선으로 선으로’ (부분).

면서 새로운 경험도 한 그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패션쇼에 참여하면서, 몇십분의 쇼 한번으로 사라져 버리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패션쇼가 아닌 전시회를 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됐어요. 미술 세계를 접하면서 동경이 대상이 됐죠. 저와 뿜 수 없는 각종 천과 바늘 등으로 작업하며 저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10여년 전부터 작업해 온 것들이다. 1층 전시실에는 무명 면 등 섬유를 활용한 대형 작품을 내걸었다. 강렬한 쪽빛과 붉은 빛이 인상적인 작품들은 일일이 손으로 매듭을 만들었고 특히 무명천에 먹물을 들어 제작한 작품들의 은은한 색감이 인상적이다. 지금은 접하기 어려운 무명은 그가 가장 애착을 갖는 소재로 “아마도

의상을 놓지 않았던 건 무명의 매력 때문”일 거라고 말한다.

2층에 걸린 소품들은 흥미롭다. “바느질쟁이가 바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제작한 작품들”이다.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한 부모의 마음이 담겼을 아버지의 떨어진 모시옷과 집 처마에서 20년간 매달려 있던 녹슨 풍경, 낡아 부식한 철조각 등이 모두 작품 소재가 됐고 수백개의 바늘도 중요한 오브제가 됐다. 또 옆 공간에는 삼베 의상과 목화를 소재로 작업한 작품들도 전시했다.

이번 전시는 무엇보다 공간이 주는 매력이 크다. 나빌레라문화센터는 일제강점기부터 70년대 후반까지 누에고치에서 명주실을 뿜아냈던 옛 나주잠사공장을 리모델링했다.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나는

높은 천장과 누에고치를 선별해 올려보내던 대형 기계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공간을 구석구석 둘러보는 재미가 크다. 윤씨는 공간에 맞춰 ‘스토리 있는 전시’를 기획했다. 잠사공장과 면·무명·바늘을 소재로 한 전시, 이보다 ‘안성맞춤’은 없다. 1층에는 간단한 차를 마시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여기가 잠사공장이었잖아요. 누에고치에서 실을 뿜아내 섬유 소재로 삼듯, 저도 이번 전시를 통해 막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기분입니다. 임동창씨가 앞에서 깨어나는 내용으로 개막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늘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앞으로 많은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문의 061-339-8582. /김미은 기자 mekim@

미디어아트레지던스 사업, 中 창사시와 교류 ‘물꼬’

광주문화재단 중국 방문 이어 내달 춘철 기념 미디어아트쇼 등 참가



중국 창사시를 소개하는 기획박물관을 둘러보고 있는 방문단 일행. (광주문화재단 제공)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 미디어아트레지던스 사업이 중국 창사시와 교류 물꼬를 텄다.

문화재단 관계자와 레지던스 입주작가는 최근 4박 5일 일정으로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국 창사시(Changsha)에 다녀왔다. 창사시의 ‘창사 미디어아트 개발 센터’, ‘창사 박물관’, 국영방송 ‘TV ZONE’, 레지던스 ‘P8’ 등을 방문해 미디어아트 현황을 공유했다. 이들은 향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인 광주시와 창사시가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협력기로 했다.

먼저, 오는 2월 16일, 17일, 19일 중국 호남성 창사시 동관요 박물관 일대에서 펼쳐지는 춘철 기념 미디어아트쇼 ‘연화일야(烟花一夜)’에 미디어아트레지던스 입주작가인 문정환, 안유자 작가가 참가한다. ‘연화일야’는 창사시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되고 처음으로 추진하는 미디어아트 첫 행사다.

이어 4월에는 창사시가 주최하는 ‘창사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에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 관계자, 작가가 초청되는 등 두 도시간의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

또한 미디어아트 레지던스는 올해 국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아메리칸 아트 인큐베이터 ‘ZERO1’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ZERO1’ 사업은 미국 미디어아티스트 로렌 맥카시가 4~5월 중 광주에 방문해 미디어아트 레지던스에 머물며 한 달 간 작업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어 8월에는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입주작가 중 1명을 선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영하는 전문가 개발 워크숍에 참여시키는 복안이다.

한편 미디어아트 레지던스는 입주작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 미디어아트 전문강사 워크숍, 미디어아트 페스티벌과 연계한 입주작가 공동 미디어아트 작품 제작, 기획 전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입주작가 공모는 2월 중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문의 062-670-749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독립운동가 백관수 시집 ‘동유록’ 발간

근촌(芹村) 백관수(1889~1950·사진)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언론인, 정치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1889년 전북 고창군 성내면에서 태어난 근촌은 소년시절부터 같은 고향 출신 김성수, 송진우와 교우하였으며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했다.

1910년 한일합방 후 동경 메이지 대학에 유학하던 서조선청년독립단을 결성해 1919년 2월 8일에 동경 YMCA에서 2·8독립선언서를 선포했다. 근촌은 조선청년독립단의 단장을 맡았고 학생대표는 11인이었다. 그로 인해 그는 1년 여간 투옥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근촌의 자주 독립에 대한 실천적 행위는 그의 사촌형 백인수가 1910년 8월 한일합방이 되자 분사의 유서를 남기고 순절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이번에 시산책해와기획시선으로 그가 남긴 시집 ‘동유록’(시산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작품집에는 일제의 지배에 대한 시적 저항의 정신이 담겨 있으며 시대에 자신에 대한 성찰이 주를 이룬다. 특히 1919년 동경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을 주도한 저항의 정신과 기개가 맞물려 있다.

당초 작품은 한시로 되어 있었지만 근촌의 차남인 백순이 한글 번역과 영문 번역을 맡아 이번에 시



집을 발간하게 됐다.

“정년 때는 2월이건만/ 봄기운 아직도 어이 더딘가/ 세 다다미 크기의 감방 창 아래에서/ 역시 나 홀로 모듬이런가”(‘정년 때는’ 중에서)

위 시에는 2·8 독립선언 직후 투옥된 당시의 정황이 담겨 있다. ‘세 다다미 감방’에서 기다리는 ‘봄기운’은 독립에 대한 갈망한 열망으로 읽힌다.

이런것 전 한국시인협회 회장은 “2·8 독립선언”에 이어 3·1독립만세 운동이 거국적으로 전개되고 일제 무력 진압으로 상당한 일명 살상 사태가 벌어졌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며 “‘동유록’은 형극의 시대를 살았던 선구적 지식인의 정신과 감성의 기록”이라고 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